근무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등 반부패 공직감찰 계획

대통령 해외순방, 추석연휴(9.30.~10.9.) 및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하여 공무원 근무기강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토착비리(국고보조금 부당집행), 갑질행위, 부정청탁 등 반부패 공직감찰을 추진하고자 함.

□ 점검 개요

○ 기　간 : '17. 9. 6.(수) ~ 10. 13.(금) ※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포함

○ 대　상 : 본부·소속기관 및 15개 시·도 (서울·제주 제외)

- 자료수집 : 8. 28. ~ 9. 5. / 현장점검 : 9. 6. ~ 10. 13.

○ 감찰반 : 조사담당관 5개팀 18명 ※ 필요시 지자체 전문인력과 합동감찰

□ 점검 내용

○ **(비상대비)** 당직실·비상상황실 근무실태, 비상연락망 등 유사시 연락 및 대응체계 점검

○ **(토착비리)** 국고보조금 부당집행,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에 따른 각종 위법·부당 행위

○ **(공직기강)** 근무 중 음주·도박, 무단결근·무단이석, 허위출장,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및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

○ **(갑질행위)** 부적절 언행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

○ **(부정청탁)** 직무관련 금품·향응 수수, 법령 위반 또는 지위·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

○ **(안전관리)** 응급의료, 대중교통안전 등 국민생활안전 관리 실태

○ **(민원불편)** 업무전가, 무사안일, 규제남용 등 잘못된 관행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저해 행위